2021년 2분기 경영실적

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











Disclaimer

본 자료는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에 의해 작성되었으며, 본 자료에 포함된 2021년 2분기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,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,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또한,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,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,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,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(단, 출처표시 필수),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분기 경영실적

▲

현대건설기계

- 1. 경영실적 요약
- 2. 영업이익 분석
- 3. 부문별 매출분석
- 4. 지역별 매출현황
- 5.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
- 6. 재무상태 및 주요 지표











1. 경영실적 요약



2분기

- 매출: 9,526억원, 전년동기대비 43% 증가

- 영업이익: 707억원, 전년동기 대비 68% 증가 (영업이익률 7.4%)

-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(신흥 시장 호조 및 선진시장 회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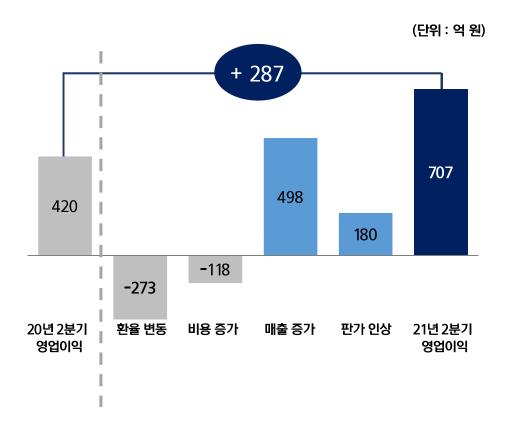
| 구 분 | '21.2Q | | | 120.20 | 121 10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21.2Q | YoY | QoQ | '20.2Q | '21.1Q |
| 매출액 | 9,526 | 42.5% | -1.3% | 6,684 | 9,649 |
| 영업이익 | 707 | 68.3% | -11.3% | 420 | 797 |
| 영업이익률(%) | 7.4% | 1.1%p | -0.9%p | 6.3% | 8.3% |
| 영업외손익 | 172 | N/A | N/A | -146 | -21 |
| 금융손익 | -52 | N/A | N/A | -62 | -53 |
| 외환손익 | 60 | N/A | 42.9% | -50 | 42 |
| 당기순이익 | 655 | 242.9% | 10.3% | 191 | 594 |
| 지배지분 | 601 | 418.1% | 24.2% | 116 | 484 |

2. 영업이익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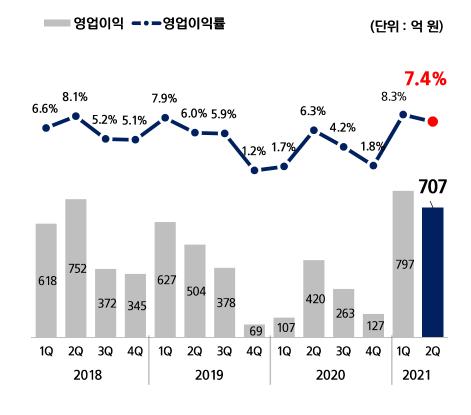


•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287억원 (68%) 증가

주요 영업이익 증감 사유 (전년동기대비)



분기별 영업이익(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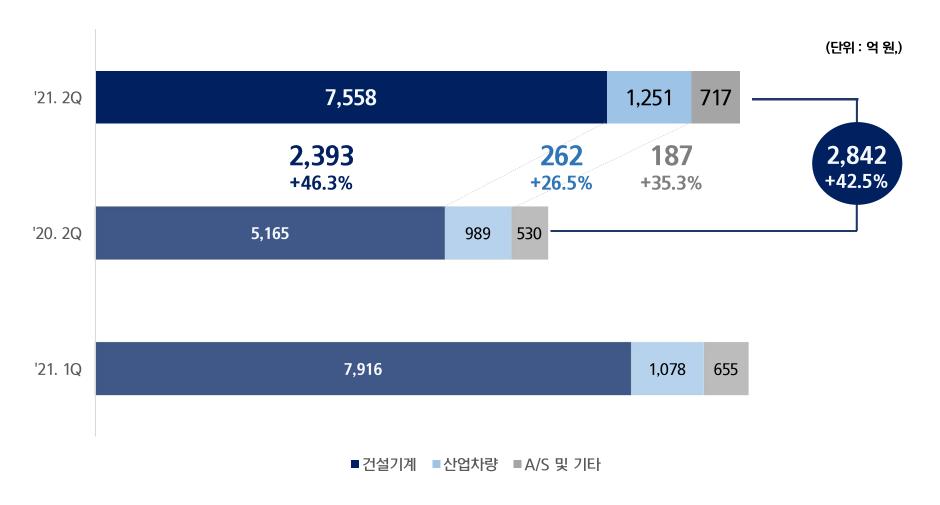


3. 부문별 매출 분석



- 건설기계: 신흥, 국내 시장 성장 지속 및 선진시장 수요 회복에 따른 전년동기 대비 2,393억원 (46.3%) 증가
- 산업차량 : 북미 및 신흥시장 수요 증대로 전년동기 대비 262억원 (26.5%) 증가

2분기 부문별 매출



4. 지역별 매출현황



• 직 수 출: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세 지속

• 인 도: 4월 이후 락다운 재시행으로 일시적 성장세 둔화 (20년 락다운 대비 봉쇄 정도 완화되었으며, 회복 중)

• 중 국: 경기부양 속도 조절에 따른 시장 수요 조정 발생. 매출 채권 관리 강화 등 리스크 대응 선제 조치 시행

• 선진시장: 백신 접종 및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3월 이후 수요 회복 본격화

• 국 내:양호한 시장환경 속 매출 증대

매출액 (단위 : 억 원, %) **분기별 지역별 매출비중** 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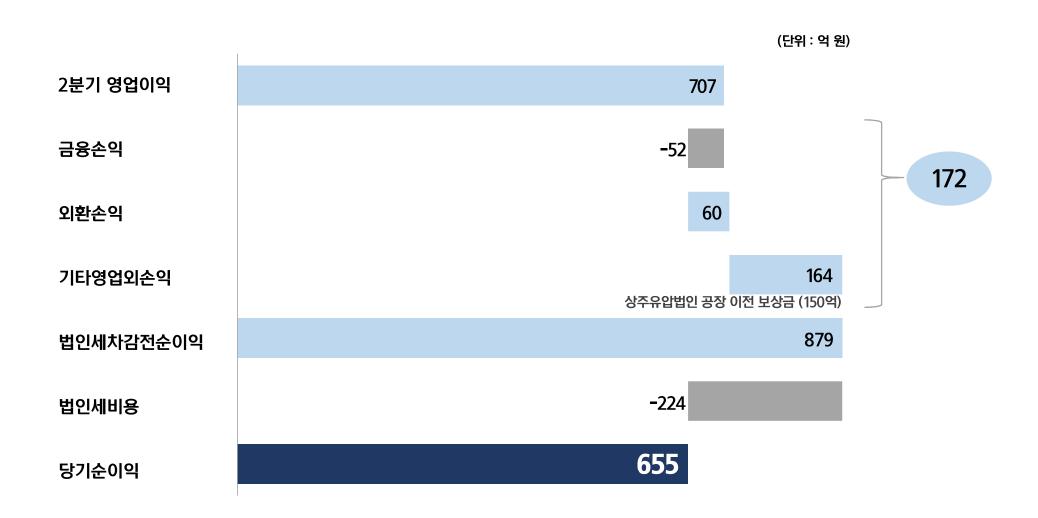
| 구 분 | '21.2Q | YoY | QoQ | '20.2Q | '21.1Q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
| 직수출 | 2,936 | 149 | 30 | 1,178 | 2,260 |
| 인 도 | 524 | 174 | -50 | 191 | 1,048 |
| 중 국 | 2,593 | -17 | -18 | 3,142 | 3,179 |
| 북 미 | 1,033 | 46 | 13 | 708 | 915 |
| 유 럽 | 1,052 | 40 | 15 | 754 | 914 |
| 국 내 | 2,168 | 52 | 12 | 1,431 | 1,934 |

'20.2Q '21.1Q '21.2Q ■직수출 ■인도 ■중국 ■북미 ■유럽 ■국내

[•] 주) 상기 매출은 내부거래 제거 되지 않은 단순 합계 금액임.

5.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

• 금융 손익 -52억, 외환 손익 +60억 등 반영하여 655억원의 당기순이익 기록



6. 재무상태 및 주요지표



• 양호한 재무건전성 유지

요약 재무상태

| 구 분 | '21.2Q | 2020 | 2019 | 2018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자산 | 37,123 | 33,559 | 31,880 | 31,265 |
| 유동자산 | 26,057 | 22,617 | 21,515 | 22,039 |
|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| 11,099 | 7,400 | 7,477 | 5,959 |
| 현금 및 현금성자산 | 8,239 | 8,928 | 6,375 | 5,222 |
| 비유동자산 | 11,066 | 10,941 | 10,365 | 9,227 |
| 부채 | 19,772 | 17,683 | 16,109 | 15,583 |
| 유동부채 | 12,463 | 11,565 | 10,528 | 9,451 |
|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| 4,742 | 3,558 | 2,923 | 4,101 |
| 비유동부채 | 6,537 | 6,118 | 5,581 | 6,132 |
| 차입금 | 12,152 | 12,145 | 11,218 | 9,660 |
| 순차입금 | 3,913 | 3,217 | 4,842 | 4,437 |
| 자본 | 17,351 | 15,875 | 15,771 | 15,682 |

(단위: 억원) 주요 재무지표 분석

| 구 분 | '21.2Q | 2020 | 2019 | 2018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유동비율 (유동자산 / 유동부채) | 197% | 196% | 204% | 233% |
| 부채비율 (총부채 / 총자본) | 114% | 111% | 102% | 99% |
| 차입금비율 (총차입금 / 총자본) | 70% | 77% | 71% | 62% |
| 순차입금비율 (순차입금 / 총자본) | 23% | 20% | 31% | 28% |

시장 현황 및 전망





시장 현황 및 전망



• 하반기 중국 시장 수요 조정 예상되나, 직수출 지역 호조세 지속 및 선진시장 회복세 가속화 기대.



- 2분기 수요는 전년 동기比 15% 감소했으나, 하반기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재개될 전망
- 상반기 M/S는 3.1%(1Q 3.2% 2Q 3.1%)로 외자업체 중 유일하게 상승
- 시장조정기에 대응하여 딜러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진행 中

인도

- 2분기 락다운 재시행으로 수요 성장은 둔화되었으나, 2019년 이상의 시장 규모 예상 (年 2.2만대)
- 시장수요 증가율 이상의 판매 확대로 업계 2위 유지 중 ('21년 상반기 M/S 17.7%)
- 하반기 수요 회복 전망

신흥

- 원자재 가격 상승.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5월까지 수요 YoY 67% 증가
- 지난해 4분기부터 상반기까지 수주 확대 지속 중 ('21년 상반기 YoY 150%)



- 3월 이후 수요 회복세 본격화
- 당사 신모델(A 시리즈) 판매 호조로 매출/수익성 모두 개선

